

남원시, 시설원에 '돈버는 농업' 만들기 박차

올해 생산기반 확충·품질 개선 등 71억원 투입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 영농편의 강화

남원시가 농업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창조적 농업경영으로 '돈버는 농업' 실현에 나선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올해에만 시설원에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개선사업 분야에 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20억원(4.5ha),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 10억원(5ha), 시설원에 현대화 19억원(16.8ha), 시설원에에너지이용 효율

화 6억8000만원(6.2ha), 오픈농방기지원 13대 5000만원, 시설원에 ICT융복합지원 1억8000만원(2ha), 정년 스마트팍지원(신규) 1억2000만원(0.3ha), 원예용 중형관정 지원 10공 7000만원, 저온저장고지원 70대 4200만원, 발작물 관리기(신규) 100대 2억2000만원 등 13개 사업이다.

또 신규농, 귀농자 등 영세농가들이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원예용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한다. 적정수준의 규모를

갖춘 농가에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을 통해 단동하우스에서 연동하우스까지 경작형태에 맞는 시설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특히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농가 자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들의 자부담 경감과 안정적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양액시설, 레일링, 베드시설 등을 지원해 생산비, 노동력 절감과 작업편리성을 높이고, 시설원에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다검보온커튼, 오픈농방기 등을 지원해 겨울철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

어주는 등 농업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남원시는 또 발작물관리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고령·여성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 생산비 절감 등에 힘을 보태 방침이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2일 "시설원에 농가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인정하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모래판 계보 있다"



창단 원년 설날 두 체급 제패

영암군민속씨름단(구단주 전동평)이 창단 원년 첫 출전한 2017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두 체급을 제패하며 민속씨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부터 6일간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17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이슬기 선수가 백두장사에 올랐으며, 최성환 선수는 한라장사로 등극했다.

또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 정창조 선수는 백두급 1품, 최정만 선수는 금강급 1품, 박병훈 선수는 한라급 4품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체급별 8강에 진출한 선수들이 탁월한 실력으로 화려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영암군민과 16만 향우를 비롯한 전국의 시청자를 매료시켰으며, 지상과 방송 생중계를 통해 씨름 유니폼과 새겨진 영암 '달마지살'을 전국에 알리는 등 홍보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첫 우승 타이

틀을 선사한 한라장사 최정만 선수는 한라급(110kg 이하) 16강부터 준결승까지 2-0 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고,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박정의 선수(정읍시청)에게 첫판을 내주고도 내리 세판을 따내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꽃가마에 올라탔다.

'백두장사' 이슬기 선수는 16강에서 '명절장사' 장성복(양평군청)을, 8강에서 '백두장사 6회 우승자' 정경진(울산동구청)을, 준결승에서 '2016 추석 백두장사 손명호(의성군청)를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했고,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 정창조 선수와 맞대결(3-1 승리)을 벌여 설날 대회 백미를 장식하며 백두장사에 올랐다.

이번 대회 2체급 석권으로 명장 반열에 올라 선 김기태 감독은 "변화된 환경에서 묵묵히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 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특히 대회기간 내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영암군민, 향우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기자 jbh@

천연 짬뽕 채소 '바라후'

강진 농가 소득도 '짹짹'

도원마을 연간 10억여원

소금 없이도 짬뽕 나는 채소 '바라후'가 강진지역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강진군은 2일 "강진을 도원마을의 농업법인이 바라후를 생산해 연간 10억여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바라후는 겉모양이 상추와 비슷하고 줄기와 잎 뒤에 얼음 모양의 결정체가 붙어 있어 '아이스 플랜트'로 불린다.

바라후는 표면의 투명한 결정체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항산화 작용, 지방연소, 혈당조절 기능이 우수해 당뇨와 성인병에 좋고 미네랄, 식이섬유, 수분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잎과 줄기는 생식, 생즙, 찐, 샐러드 등 방법으로 먹는데 체내에 잔류하는 나트륨 없이 짬뽕을 낸다.

100g당 6000원으로 일반 채소에 비해 비싸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강진군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바라후가 일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저온성 작물이라 겨울철에도 재배가 쉽다고 설명했다.

군은 식용으로만 이용하던 바라후의 노화방지 기능에 주목하고, 농업법인에 사업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해 화장품 연료 추출시설을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활용도 높은 바라후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강진군, 벼 대체 전락품목 연(蓮)재배 집중 육성



강진군 성전면 연 재배농가들이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연 수확기를 이용해 연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재배단지 조성...관광자원화·농가 높은 소득창출 등 효과

쌀값이 폭락하면서 강진군의 연 재배사업이 쌀 농업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지역 연 재배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벼 대체 전락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100ha 조성을 목표로 식용연근 확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7ha 가 조성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 소득이 창출되고 있다.

연은 뿌리(蓮根), 꽃, 잎, 연자(연실)는 물론 연꽃의 잎술까지 활용되는 등 쓰이지 않는 부위가 없으며, 연근은 생으로 먹거나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각종 요리나

약재로도 사용한다. 특히 항암성분인 폴리페놀과 단백질의 소화 촉진 및 위벽 보호에 효과가 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등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임새가 다양하고, 6차 산업화 관광자원으로도 효과적인 작목이다.

강진군연근협회 이삼현 회장은 "3년 전부터 연을 재배해 왔는데, 겨울철 기온이 온화한 강진지역은 연재배 최적지로 한번 식재하면 계속 수확할 수 있고 농사에 불리한 저습지에도 적합해 일손과 경영비가 적게 든다"면서 "특히 벼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로 현재 대부분 생연근 형태로 단순 유통되고 있으나, 앞으로 가공 상품화

를 통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연 산업 선진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진원 강진군수는 연근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선진 연 재배지역과 일본지역의 생산 및 유통상황에 대한 견학, 연구 전문가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강진지역에서 벼 대체작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작목이 연근임을 확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강진군은 연재배단지 8ha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농가들이 직접 수확해 유통할 수 있도록 수확장비 2대를 추가 공급하는 등 연중 수확체계가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kwangju.co.kr

전주 한옥마을 인근 대성동에 주차장 710면 조성

불법주차 강력 단속도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증가와 서부신시가지 상업지구의 난개발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전주시가 주차장 확장과 병행해 강력단속을 벌인다. 시는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가까운 대성동에 7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계획 시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완료됐으며 보상협약이 끝나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하광장주차장 2개소(246면)를 개설한 전주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도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확충사업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차량 앞쪽에 불법주차 카메라를 부착한 시내버스 10대를 주요 노선에 투입, 팔달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16개 노선에서 불법차량 감시에 나선다.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효율적으로 교통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된 교통정보센터 교통관리시스템도 오는 10월 말까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대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정표보증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옆 매 22억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용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연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정성군 북이면 입암산 밑 한옥마을 등 적합 2만여㎡ 도로중용 11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비치 전방중용 1억4500
- 담양군 용문읍 용치리 경관중용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순창군 구림면 강가에 경차중용 임야 다용도 1195㎡ 8천만원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주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월곡리 1488㎡ 찻집·가든 적합 1억9천
- 담양군 천변리 생산복지 2968㎡ 차량통행 원활할 7억2천
- 담양 풍산면 대추리 2939㎡ 비닐하우스 4동있음 1억4천
- 홍성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풍산면 가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정용 1억천
- 공정적합 담양군 대덕면 집종지 8451㎡ 남향·도로중용 7억
- 강진군 읍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찰·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상가건물

- 남구 주월동 대지 1354㎡ 6층건물 4873㎡ 요양병원 250배드 적합 도로여건 좋음 김경 52억선 은행 33억 법인이전 45억
- 강원동 춘천시 지817층 지상12층 건물중용의 지하 2층중 1244㎡(337평) 김경 31억선 담보용 적합, 은행 6억5천 매도 1억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0층건물 대지 2618㎡ 건평 14468㎡ 경락 물건 법상가 147억 은행 20억 요양병원 적합 65억
- 원산동 운진각부근 대지 160㎡ 4층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화정동 광주은행옆 대지 235㎡ 2층건물 상가신축 적합 7억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김경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담비림
- 윤림동 중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월림간을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택

- 원산동 대지 197㎡ 건평 257㎡ 인접과 투룸 등 5 개착합 3억
- 원산동 보라교파트 부근 대지 96㎡ 주택 113㎡ 은행5천 매도 1억37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투자 가치 좋습니다!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평당 5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